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22 -

“부모님께 등 떠민 등하굣길 교통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공약 발표

- 현행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 봉사,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된 가족상·시대상 반영 못 해
- 사회적 일자리 활용한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원 확대, 신설학교 설계 시 안전 통학로 의무화 등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2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녹색학부모회 등 보호자의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돼 온 교통안전 봉사를 국가가 담당해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 보장 통학로 의무화 등 궁극적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 보호자가 중고거래 앱에 올린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 봉사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인용하며, 현재의 교통 봉사가 “사실상 강제 할당이다 보니 사정이 있는 부모들은 이런 ‘웃픈’ 알바(아르바이트)까지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등하굣길 봉사활동은 학부모들의 스트레스이자 단골 민원”이라고 부연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고충을 설명했다.

통상 학교 앞 교통 봉사는 각 학생의 보호자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맡게 된다. 그러나 봉사 일정이 일률적 순서에 의해 일방 배정되는 형태이다 보니, 담당 날짜에 봉사가 어려운 경우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현행 봉사 방식이 변화된 가족상과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맞벌이 가구 증가, 핵가족화, 가족의 해체 심화 등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봉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학부모의 무임 노동에 기댄 말뿐인 봉사활동을 없애고, 어린이 안전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의 대폭적 강화를 들었다. 교통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동시에 교통 봉사와 사회적 일자리를 연계해서 아동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투입될 사회적 일자리의 낮은 처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투입 인력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 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새로 건립되는 학교의 안전 보장 통학로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염두해서, 애초에 어린이들이 찾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등하굣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아이들 안전을 위해 교통 봉사를 묵묵히 해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등하굣길 안전, 이제 나라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끝)

[참고자료]

□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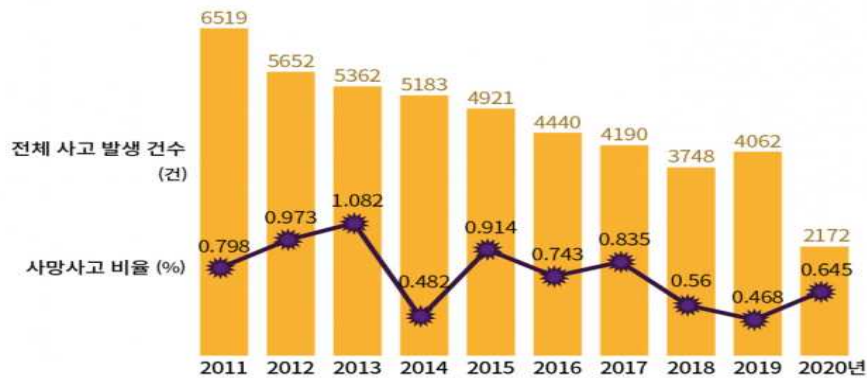
- '16~'20년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11명*,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비율, 성인보다 1.5배 높음**

*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 질병관리청, '20.6.3. 보행 교통사고 응급실 환자 조사 결과

[그림 2] 2011~2020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 추이

출처: 시사인, 2021.10.07.



- 아동 보행 교통사고는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하교 이후인 오후 2~6시에 집중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교통안전시설, 옐로우 카펫 설치 확대 등으로 단일로의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교차로 교통사고는 큰 차이 없음

[표 1] 연도별 단일로·교차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 추이(단위:건)

출처: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일로	3,061	2,376	2,032	2,067	1,077
교차로	1,194	1,541	1,454	1,691	895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범위는 초등학교 등 주 출입문에서 300미터로 설정. 교통사고는 4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전국 초등학교 절반, 등굣길 학생 안전 학부모 봉사에 의존

- 전국 초등학교 6,212개교 가운데 43%가 여전히 녹색어머니회를 포함한 교통안전봉사제도 운영(서동용 의원실, 21.10.5.)

- 관련 통계 미 파악하고 있는 대구, 강원, 충북, 전북 합산 시 50%가 넘을 것으로 추정

[표 2] 전국 시도교육청 교통안전 사업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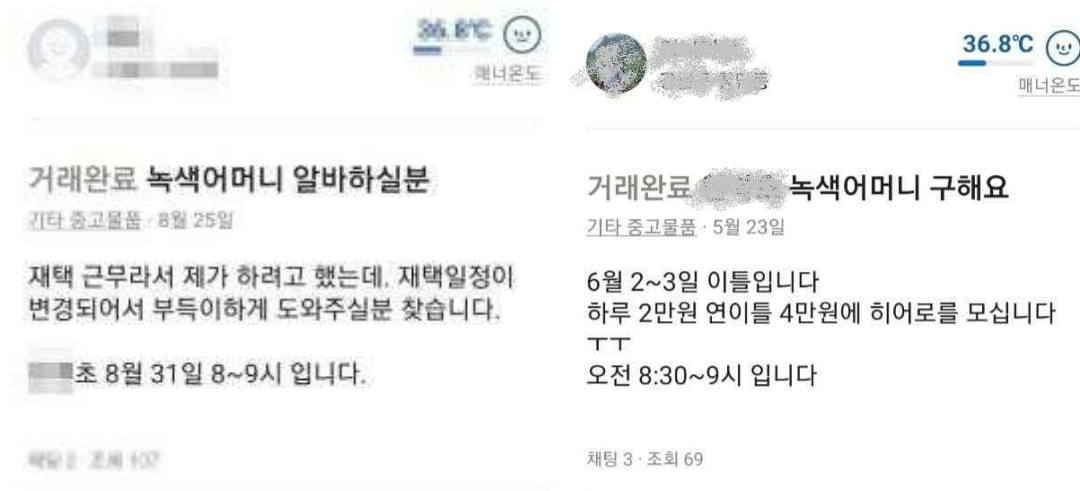
교육청	전체 초등학교 수	녹색어머니회		실버도우미 (노인 일자리)		학부모 봉사 (녹색어머니회 제외)	
		운영학교 수	비율	운영학교 수	비율	운영학교 수	비율
서울	607	222	36.6				
부산	304	150	48.9	284	93.8		
대구	232						
인천	260	149	50.2				
광주	154	90	58.4	137	89.0		
대전	148	97	65.7	110	75.1	25	16.9
울산	121	73	60.3	111	91.7		
세종	50	19	38.0				
경기	1335	879	58.7				
강원	374						
충북	260						
충남	414	99	23.9				
전북	424						
전남	429	103	19.6	133	23.4	18	4.3
경북	473	170	32.8			170	32.8
경남	509	272	53.4	330	64.8		
제주	118	16	13.6	60	50.8		
합계	6,212	2,339	43.0				

* 교육부 제출 자료. 빈칸은 교육청 보유 자료 없음

□ 초등학교 학부모 단골 민원, 등갓길 교통 봉사

- 교통 봉사 중 상당수는 사실상 강제 할당
 - 당근마켓 등 중고 애플리케이션, 맘카페에서 시간당 1~2만 원의 소위 녹색 알바 거래 성황

[그림 2] 당근마켓 녹색어머니 알바 거래



- 다자녀부모는 '아기띠를 매고 교통 봉사했다'거나 '아이가 둘이라 당번을 두 번 서야 한다'고 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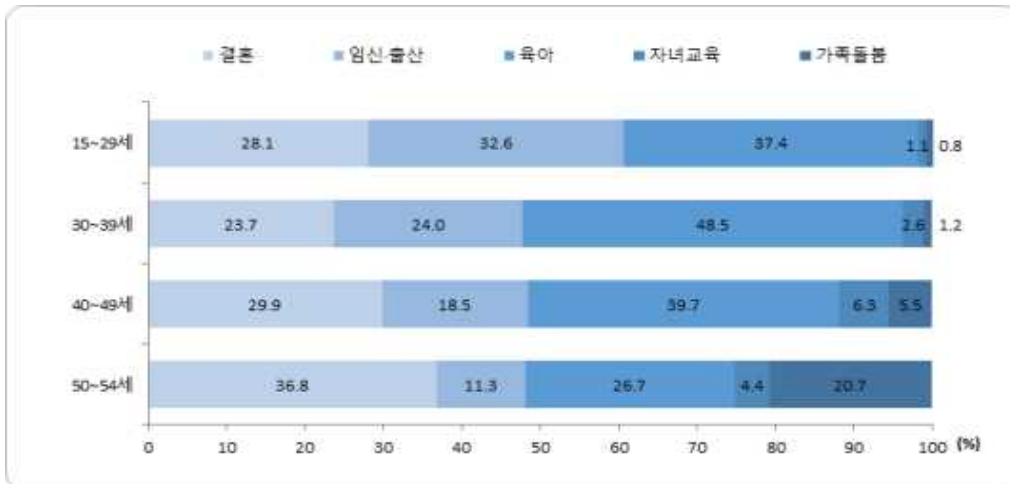
[표 3]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통안전 봉사 민원

교육청	접수 일시	민원 요지
서울	3.24	강서구에 있는 00초등학교는 ...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코로나로 원격수업 준비하랴 이런저런 상황에 휴가 내고 눈치 보며 직장 생활하는 상황인데 00초등학교의 일방적 결정은 맞벌이 가정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4.26	엄마들이 봉입니까? ...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의무는 정부나 지자체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 엄마들이 주부라고 해서 한가한 것은 아니며 직장맘들은 그런 정책에 따라가느라 회사에 눈치 봐야 합니다.
인천	3.17	분명 학기 초에 맞벌이고 시간을 뺄 수 없음을 말씀드렸는데 시간표가 짜졌다며 나와달라는 얘기에 진짜 어쩔 이리 배려가 없나 싶어 울화가 치밀어올라 문을 두드립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녹색어머니 저 대신 누가 출근해주시나요. 왜 제가 제 일을 하며 학교에 강압적인 통보에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고 죄송함을 읊조려야 하나요.
경기	3.26	아이들 붙잡고 너의 집은 왜 안 되는지 따지고 들면 아이는 주눅 들며 죄인이 됩니다. 초등학생을 둔 초등학교 교사분들은 그 시간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 녹색어머니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해 본 적 있습니까? 먹고살기 바빠 이른 시간에 일터를 나가야 하는 부모를 둔 죄 없는 어린아이를 다그치진 말아 주세요.
	3.23	올해 1, 2학년 학부모로 초등학교 학급수가 적은 관계로 아이 1명당 2번, 총 4번 봉사해야 합니다. 녹색 교통 봉사는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아침 시간 30분 봉사하는 것은 직장맘으로서로는 쉽지 않습니다.

□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사유 1위 '육아'

-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퇴사 사유가 육아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강제 할당인 교통 봉사는 워킹맘에게는 퇴사 고민을, 육아맘에게는 재취업 제고를 하게 함

[그림 2] 연령계층별 경력단절 사유



* 통계청 <2020년 경력단절 여성 현황>(20.11.24)

□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통한 등하굣길 안전 확보

- 노인 일자리 활용 교통안전 사업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통 봉사 의무제 폐지
*2021년 기준 사업비 465억 원, 지원 인원 32,754명
- 2021년 현재 보건복지부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사업으로 총 3,000개교(초등학교 2,720개교, 중고등학교 279개교, 특수학교 1개교) 지원 중
*초등학교 6,157개교, 중학교 3,245개교, 고등학교 2,375개교, 특수학교 187개교
- 사업의 낮은 인건비(1인당 27만 원) 개선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사업의 질 제고
- 교육청, 지자체, 경찰 등 지역 공동체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한 자율적 학생 교통안전 체계 구축 병행

○ 신설 초등학교 찾길 건너지 않는 등하굣길 조성

- 신설 학교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설치, 자동차 우회도로 설치 등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 고려 설계